

작은 꽃

주요 날짜:

- 10 월 4 일
성 프란치스코 축일
- 10 월 7 일
Soup Kitchen 봉사
- 10 월 14 일
성경모임
- 10 월 18 일
성 루가 복음사가 축일
- 10 월 20 일
성 프란치스코 지구형제회의 날
- 10 월 28 일
원례히

다음쪽:

성경모임
한 걸음씩



재속 프란치스코 성 디에고 형제회 소식지

선인장

이 혁종 요셉, SFO

엣그제 이른 아침, 우리 집 마리아는 눈 비비며 뒷뜰에 나서는 나를 붙들고, 무척 조심스러운 낮은 목소리로 나를 한 구석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 좀 보세요!"라고 속삭입니다.

선인장 꽃입니다. 어제만 해도 아무 기색을 볼 수 없었던 그 기다란 상처투성이의 선인장 가지에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바치고 서있는... 나는 '한 거룩한 사람'을 순식간에 보고 있었습니다. 흰 그 큰 꽃떨기는 온 정성을 다하여 그 이른 아침의 말쑥한 공기와 어울려서 지극히 착한 향내음을 조용히 뱉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장엄하기까지 한 아름다움은 필경 오늘의 땀뱃을 이기질 못하고 비참하게 쓰러질 것을 생각하니, 우리들의 마음은 곧 긴장되고 애절해지는 것이지요. 전날의 소식엔 남가주에서 20여명이나 요즈음의 뜨거운 불더위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남몰래 남을 위해서 목숨바치는 순교자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약 4년 전 북가주에서 남가주 이곳 따뜻한 샌디에고로 이사를 왔습니다. Oceanside의 Mission San Luis Rey 앞뜰에 거창하게 자라고 있는 선인장들의 모습을 보고 나는 단박에 "옳지, 우리 정원을 저렇게 꾸며보자"고 마음먹었지요. 그래서 그 동안 살아온 두 채의 집에 선인장 가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꿈꾸는 선인장 가든이 되려면 아마도 우리 손자나 보게 될라는지 아직 취기에 가득하지만 그런 대로 보기가 점점 좋아 집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해 구역회 일로 우리 집을 오셨던 반 라파엘 신부님은 가시면서 내가 요즘 돌아다니면서 본 집중에 제일 인상적이라고 하시더군요. 정원 가꾸기엔 이웃을 배려하는 조경물의 배치와 색깔, 그리고 조화 있는 실용

성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 많은 선인장들의 이름조차 거의 모르고 있는 주제이지만 애기 난 김에 선인장 기르는 재미를 얘기해 봅시다. 첫째, 물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됩니다. 마디게 자라서 바깥 경치를 가리질 않습니다. 별로 손질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간해선 죽는 일이 없습니다. 잘라서 심을 땀 꼭 약 1 주일 동안 말려서 상처가 아문 다음 심어야합니다. 그래야 그 상처에서 새 뿌리가 나게됩니다. 아열대성 식물과 선인장 기르기는 오직 남쪽에 사는 우리들만의 특권이 아닐까요?

2007 년 피정



피정에서 만난 예수님

언제 봐도 반가운 형제들과 하루종일 같이 지낼 생각에 흥분된 마음으로 8 월 26 일 아침 평화로움으로 가득찬 Mission San Luis Rey 에 도착하였습니다. 반가운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적보조자 Mark 수사님의 안내로 식당

성 디에고 형제회

월례회:
매달 4 번째 주일
오후 2 시 30 분
St. Columba 성당
3327 Glencolum Drive
San Diego, CA 92123

전화:
(858) 484-1943

E-MAIL:
oh_younghoon
@yahoo.com

‘작은꽃’에 관한 문의:

전화:
(858) 618-1164

E-MAIL:
kwon_youngwhan
@yahoo.com



으로 향하여 음식과 수다로 배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수사님과 오전 시간을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사님께서 예쁘게 꾸며 놓은 Peyri 실에는故 Ed 수사님의 유품인 고상의 예수님께서 깊은 생각에 잠겨 십자가 위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수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생각하며 쉬는 묵상의 시간을 시작으로 계속하여 활기찬 나눔의 시간과 당일 2 독서인 히브리서 12 장의 주님의 훈육에 관하여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훈육(discipline)은 ‘듣는다’는 라틴어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배우면서, 우리 신앙 생활에서 있어서 듣는 데에 더 중심을 두어야 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사님의 오전 강의 중간 쯤 San Fernando Valley 수도원에 체류 중이신 한국 작은형제회의 김 재섭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께서 멀리서 형제들을 만나기 위하여 도착하셨습니다. 푸짐한 점심 식사 후 수사님의 배려로 Old Mission 을 저희 형제들만 오붓이 돌아보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798 년 지어진 고색창연한 성당에서 우리 프란

치스칸의 연연이 내려오는 역사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은 비안네 신부님의 지도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自我에 관하여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개인의 인간 성숙을 통한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서는 먼저 각자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는 점을 다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성경모임 - 에즈라, 느헤미아

역대기 상하권과 함께 역사서로 분류되는 에즈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포로 이후 겪는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일어나는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준 두 인물의 이야기이다. 역대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갈길로서 다윗 왕가의 충실한 신심회복을 강조했다면, 에즈라와 느헤미야는 하느님께 받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단과 성전 도시를 재건하고 우상 숭배를 배척하는 길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날 길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바빌론에서 키루스의 해방령으로 귀환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탈출이었고 이 어려움 속에서 회개한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버려야 하는 희생,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은 강인함, 고행과 단식을 동반한 기도의 자세등은 내 자신의 신앙 생활을 되돌아 보게 하였다.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며, 어떤 강인함, 인내성을 발휘하는지? [세레나 정리]



다함께

지난 9 월 17 일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오상을 기념하는 축일이었던 것을 기억하셨는지요? 이번 달에는 성 프란치스코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인 성인의 오상, 성흔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흔(stigmata)하면 손, 발, 옆구리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수난을 상징하는 외적 성흔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에 동반하는 예수님께 대한 애금심, 예수님의 고통, 슬픔, 인류구원을 위한 대속적 희생에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인 극심한 고통과 아무런 외적인 상처 없이 내적으로만 겪는 극심한 고통인 내적 성흔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고통 없는 성흔은 공명심만 높이는 공허한 상징일 것이라고 합니다. ‘The Life of Stigmatics’ (‘성흔을 입은 사람들의 삶’, Dr. Imbert)에 의하면 13 세기 이전의 알려진 성흔은 없다고 하며, 성 프란치스코의 오상이 첫 기록된 성흔이라고 합니다. 살아생전 그토록 겸손으로 애써 감추려고 한 그분의 오상이 첫 기록된 성흔이라는 점은 항상 끔찍이기를 원하신 성인이 별로 반가워 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신의 뜻에 의한 것이라 믿어지는 성흔은 321 건이 있다고 하며, 그 중 62 명의 성인과 복자의 성흔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